

“SOS 의료비 · 복지 65억원 지원한다”

글 편집부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은 2020년 ‘SOS 의료비지원’과 ‘SOS 복지지원’의 사업 규모를 지난해의 52억 원보다 13억 원 늘린 65억 원으로 확대했다.

아산재단의 지원 확대는 경기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용악화 등으로 최근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이웃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아산재단은 그동안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처한 중위소득 80% 이하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수술 같은 긴급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지원하는 SOS 의료비지원,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한 개인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SOS 복지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SOS 의료비지원

SOS 의료비지원은 1995년부터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아산재단 산하 8개 병원의 환자를 지원해오다가 2015년부터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의 환자들에게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2019년에는 총 128개 병원의 환자 2,019명에게 45억 원을 지원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중위소득 80% 이하의 환자는 해당 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사를 통해 아산재단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SOS 의료비는 환자별로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SOS 복지지원

SOS 복지지원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한 중위소득 80% 이하의 개인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별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개인을 위해 아산재단에 지원 신청을 하면 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지원된다.

2019년에는 174개 기관에서 신청한 231명에게 7억 원을 지원했다.

아산재단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정주영 설립자의 설립 이념에 따라 지금까지 67,952명에게 SOS 의료비 539억 원을 지원했다. SOS 복지지원으로는 290명에게 10억 원을 지원해 모두 68,242명에게 549억 원을 지원해왔다. 🌟